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준비

선재하신 예수님	1장
물로 포도주 만드심	2장 ❶ 표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사역

사역 준비	3장	
신하의 아들 고치심	4장	❷ 표적
베데스다 병자 치유	5장	❸ 표적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① 나는-이다
오병이어/물위를 걸으심 (35, 48, 51) 생명의 떡	6장	❹❺ 표적 ② 나는-이다
	7장	
(12/9:5) 세상의 빛	8장	③ 나는-이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치유	9장	❻ 표적
양의 문문	10장	④ 나는-이다
(11, 14) 선한목자		⑤ 나는-이다
나사로를 살리심	11장	❼ 표적
부활, 생명		⑥ 나는-이다
예루살렘으로	12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부활

수난예고, 발을 씻기심	13장	
길, 진리, 생명	14장	⑦ 나는-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장	⑧ 나는-이다
성령의 일	16장	
대제사장적 기도	17장	
잡히심, 심문 '내가 그니라/왕이니라'	18장	⑨ 나는-이다
십자가, 죽음, 장사	19장	
가장 위대한 표적 부활	20장	❸ 표적
내 양을 먹이라	21장	

요한
복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0 사순절 드라마바이블 0326 4번째 I

요한복음 11-13장

각 표적과 관련된 짝꿍 말씀(나는-이다) 묵상하기

❶ 예수님으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 + 니고데모 이야기(2:1-11/ 3:1-21)

❷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의 중재자이십니다.

신하의 아들 치유/베데스다의 치유 + 아들의 권한(4:43-5:47)

❸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오병이어/물위를 걸으심 + 유월절의 완성이신 예수(6:1-71)

❹ 예수님은 인류의 빛이시며 목자 되십니다.

초막절 +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치유 + 선한목자, 수전절

(7장/8:12-59/9:1-10:42)

❺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나사로의 부활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11:1-54)

❹-1 예수님은 인류의 빛이십니다.

초막절과 생수의 강(7:37-44) 나는 세상의 빛(8:12-59) + 맹인의 치유(9장)

초막절 이야기 ❶ 출애굽 광야시절 물을 주신 하나님, 풍족한 비도 허락하소서!

생수의 강 이야기 ❶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Sign 예수님은 목마름 없는 생수(성령)를 주시는 분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장래 농사를 위해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을 필두로 행렬을 이루어

실로암 연못물을 떠다 성전 제단에 붓는 예식을 행했습니다(사12:3, 시113-118).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처럼 일체의 노동을 금하고, 함께 모여 희생 제물을 드려 절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레23:34-36).

물 예식도 행하지 않는 마지막 큰 날(7:37)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37-38).”

하나님께 물을 간구하는 절기에, 물이 필요한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 뿐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6:35, 48, 51).

현재의 배고픔 뿐 아니라 참 떡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6:58).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름 없는 생명수, 성령을 주십니다(7:39).

현재의 갈급함 뿐 아니라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4:16-18).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4:10).”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4:13-14).”

초막절 이야기 ② 출애굽 광야시절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에도 빛을 비추소서(7장).

세상의 빛 이야기 ① 나는 세상의 빛이니(8:12). Sign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 이십니다.

초막절 저녁에는 ‘빛의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출애굽 시절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계열의 젊은이 4명이 여인의 뜰로 내려가 황금 등대에 놓인 황금 주발에 기름을 채웁니다.

이 장소로부터 빛이 밝혀지고 경건하고 의로운 행실로 알려진 이들이 무리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뜰, 연보 궤 앞에서(8:20) 빛 축제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8:12).”

빛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 앞에 예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과거 불기둥 가운데 임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임했습니다.

맹인 치유 표적 ❶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9:7)

세상의 빛 이야기 ❷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7:12)

Sign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빛 되심을 표적으로 보이십니다.

날 때부터 눈 먼 자, 사람의 방법으로는 가망이 없는 이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눈먼 자는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영의 눈을 떴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9:15) 부르다가 ‘선지자’로(17절)

이후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33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38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맹인 치유 표적 ❷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9:39).

세상의 빛 이야기 ❸-1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8:44).

Sign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참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8:31, 36).

바리새인들은 눈 뜬 맹인입니다(7:39).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7:39-41).”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며 당시 지역적 편견을 덧붙여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애썼습니다(7:40, 52, 8:48).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8:57).” 당시 50세는 원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즉, 예수님의 연소함을 이유로 권위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1:1-3).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8:58).

예수님은 말씀이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14:6).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밝히 보게 되며 알게 됩니다.

그 진리로 자유케 됩니다(8:31-32)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8:51).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8:55). 율법을 지킨다지만 그들 중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7:19).

표적을 보고도 안식일 논쟁에만 치우쳐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8:30).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8:47).

④-2 예수님은 선한목자/양의 문이십니다.

맹인 치유 표적 + 선한목자이야기(수전절의 성취로서의 예수)(9:1-41/10:1-42)

맹인 치유 표적 ③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맹인으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요9:39, 마15:14).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8:44).

그들은 도둑입니다(10:10). 그들은 샅꾼입니다(10:12)

선한목자/양의 문 이야기 목상 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Sign 예수님은 선한목자이십니다.

10장 본문은 수전절을 배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10:22).

수전절은 유대인을 핍박하던 헬라 왕조와 독립전쟁을 벌여 승리한 마카비 형제가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성별하여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에스겔 34장을 봉독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겔34:10).”

수전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본인을 ‘선한목자’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양떼, 어둠 속에 흩어진 양들을 건져내실 선한 목자십니다.

한편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맹인으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7:39-41).

그들은 양 떼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위험한 때에 양을 버립니다.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10:12-13).

선한목자/양의 문 이야기 묵상 ②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10:7-8).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10:10). Sign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도시 형과 산간벽촌 형입니다.
도시형 양 우리는 나무로 되어 있고 양은 마을 공동소유였습니다.
양치기는 고용된 일꾼으로 양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의 이름을 세세히 알거나 친밀감 있는 관계라기보다 숙련된 기술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간벽촌 형 양 우리는 돌을 쌓아 담을 만들었습니다.
문이 따로 없고 담 한 부분이 트여 있는데 밤이면 양치기가 이 문을 가로 막고 잤다고 합니다.
양은 대부분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을 보호하는 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양의 주인이며 양 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후자를 배경으로 합니다.

양치기는 양들을 인도해 우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제 몸을 문 삼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십니다.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10:9-10).
예수님은 양을 돌보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으로 돌보십니다(15절).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까지 죽으실 분입니다.

선한목자 이야기 묵상 ②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10:15)

수전절 이야기 묵상 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니라(10:26-28).
Sign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사람들은 수전절을 기념하며 로마 압제로부터 구해낼 제2의 마카비, 개선장군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양떼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마카비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헬라로부터 해방되었던 자들은 이제 로마의 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와 상황에 제한된 개선장군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참된 삶과 죽음을 보게 하시고, 오늘 삶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